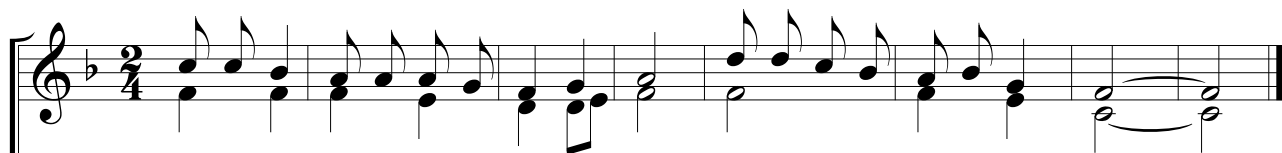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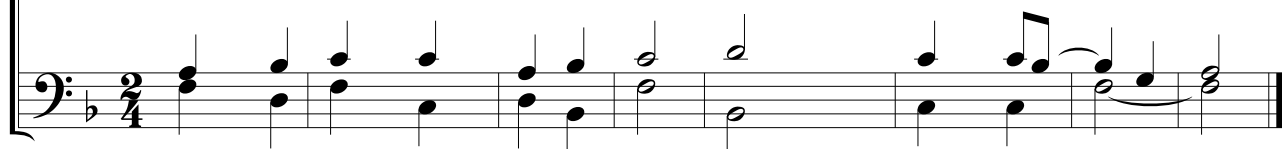
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화답송 [9월 20일]

시편 126(125), 1-2ㄴ. 2ㄷㄹ-3. 4-5. 6



(후렴)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.

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 어 주 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 - 였 네.

2. 그 때 민족들이 말 하 였 - 네. "주님이 큰일을 하 셧 구 나."
저들에게

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눈물로 환호하며 거 두 리 라.
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 돌 리 소 서. 씨뿌리던 사람들

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-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 득 찼 네.
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 셧 기 에 우리는 기뻐 하 - 였 네.

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- 람 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오리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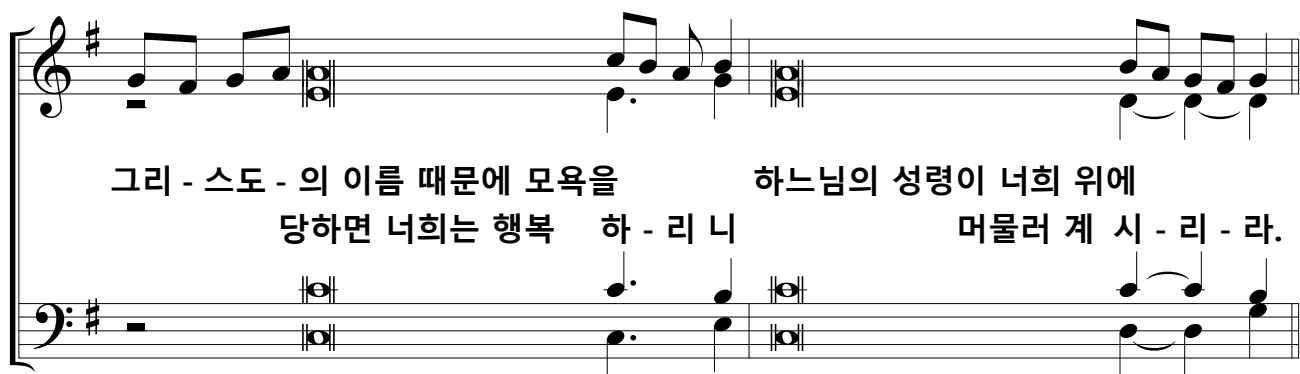
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
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알렐루야 [9월 20일]



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. It consists of a treble and a bass staff, both in 2/4 time and key of D major. The melody is simple and joyful, with the lyrics '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- 야' written below the notes.

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- 야



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. It continues the melody from the first system. The lyrics are: '그리 - 스도 - 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당하면 너희는 행복 하 - 리 니 머물러 계 시 - 리 - 라.' The music features some rests and longer note values, particularly in the bass line.

그리 - 스도 - 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
당하면 너희는 행복 하 - 리 니 머물러 계 시 - 리 - 라.